

난가고시, 안정대책은 무엇인가?

□ 정리 / 김용화 부장

「본고는 난가고시 체계가 계란 공급과잉으로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실상을 파악해 보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수도권 난가조절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쌍룡농장 장대석 사장을 만나 난가조절에 관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편집지주 —

▲ 계란수급 상황은?

△ 장대석 : 계란의 생산과잉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지난해부터 예고가 된셈 아닙니까? '97년말 외환위기로 국내 경제질서가 무너지면서 혼란이 시작되었지만 경기침체로 소비가 감소하는데도 입추량은 늘려왔습니다.

사료값이 올라가자 노계를 환우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금년초에는 산란사료가 감소하자 금용위기로 생산량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하여 무리한 생산을 계속했는데 시기적으로 크리스마스, 연말, 신정, 구정으로 이어져 난가가 예상외로 상승하자 채란인들은 의아해 하면서도 생산량을 계속 증가시킨 결과 환우계가

본격 생산에 가담하는 3월부터 난가가 불안해 지더니 급기야는 공급과잉으로 바닥권이 어딘지도 모를만큼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현재는 신계는 많고 노계는 적어 계속 계란생산량은 증가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난가고시의 기능은?

△ 장대석 : 난가고시에 대해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 물론 생산자가 물동량과 유통의 흐름을 보아가며 출하할 때 생산농가들이 활용하도록 기준을 설정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시를 했다해서 법적인 효력이나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난가고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계란을 출하하는데 잣대 역할을



△ 장대석 쌍룡농장 대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고시가와 실거래 가격차의 발생 원인은?

△ 장대석 : 모든 상품의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난가조절시 유통의 흐름을 파악하여 생산량을 보아가며 최대한 생산자들에게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월등히 많을 때에는 고시가가 무용지물로 치부될만큼 출하가와 차이가 나는데 이때는 생산자들이 자기 농장, 자기 지역의 계란만 처분하기 위해 상인이 얼마라는 제시 이전에 농가들이 얼마에 가져가라는 식의 제안을 하기 때문에 결국 난가는 2~3중 시세가 쉽게 형성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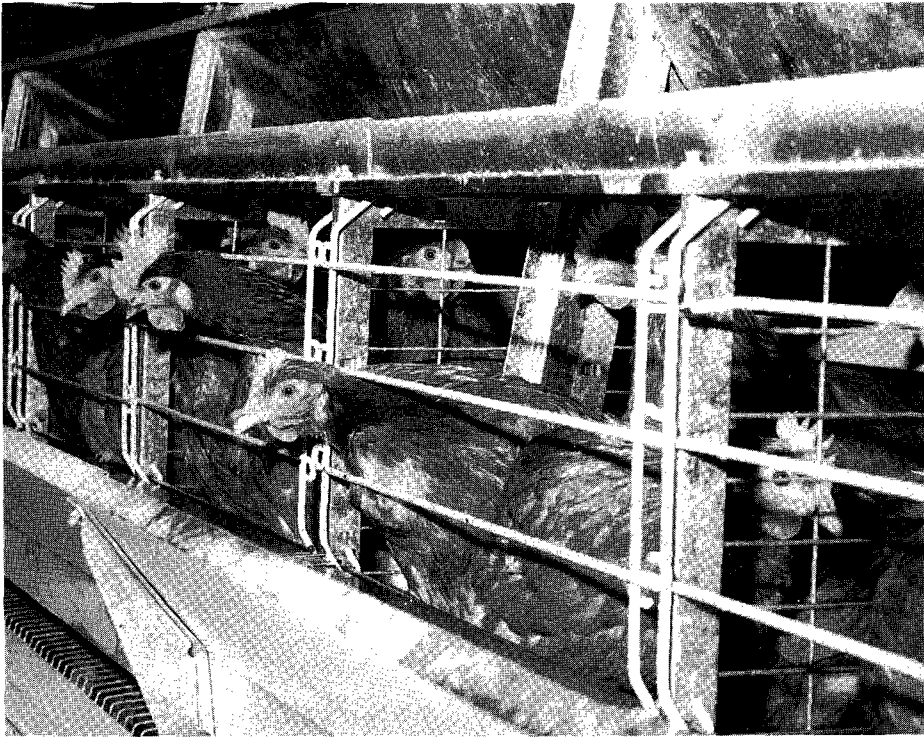
고 고시가는 현실성이 없다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란가격을 고시할 때 계란의 흐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통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상인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이 되게끔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보면 이를 악용하는 일부 상인이 있어 매번

고시가 되면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상인은 상인대로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계란고시가를 현실성이 없다고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시를 하는 입장에서 현장시세와 차이가 나면 나는대로 대응을 할줄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계란이 모자랄 때에도 상인들이 의도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고 난가고시라는 자체의 의미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시간과 경비를 들여가며 고시를 할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상인은 싸게 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는 품질, 거리, 결제조건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가지고 가장 낮은 가격이 그날의 정상적인 유통가격으로 인식이 되면 가격은 계속 무너진다는 사실을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니까? 모자랄 때는 생산자의 생각이 같기 때문에 소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소간 문제는 있더라도 유통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한 고시제도는 그런대로 유지가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난가안정 방법이 있다면?

그래서 생산자들이 난가를 고시하는 것인데 생산자들은 바르게 정보를 습득해서 터무니없이 출하가가 무너지지 않도록 동참을 해야 합니다.

▲ 현실화 대책은?

△ 장대석 : 계란고시는 이제 필요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계란 생산체제가 커지면서 소비보다 생산량이 많아진 시스템이 해결되지 않는한 고시가와 출하가가 일치하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만일 고시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난가는 상인이 주는데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상인이 언제 생산자 먹고 살라고 일정한 마진을 보장해 줍

△ 장대석 : 난가고시는 소비, 생산, 유통을 연계해서 하게 되므로 고시가 곧 난가안정을 유도하는 최선의 길은 아니지만 일조는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생산량이 많은 것이 문제인데 지금으로 보아선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 같고 다같이 힘을 모아 경제가 회생될 때까지 생산조절을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채란인들도 자기업을 위해 정보에 신경을 쓰고, 소문에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생산성이 나쁜 계군을 과감히 도태하거나, 일정 수준의 입식을 줄여 계란생산을 소비수준에 맞게 줄이는 작업이 선결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계